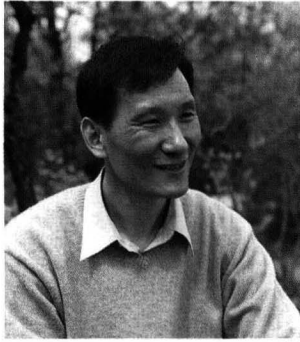


어린이문학의 발전, 소신 있는 작가의 노력과 독자의 애정 어린 격려가 함께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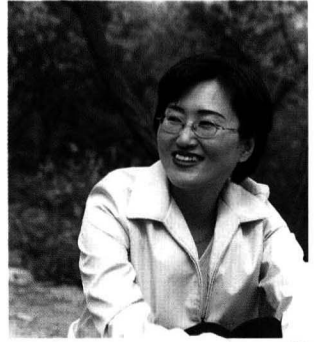


햇살 좋은 북한산 자락의 오솔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배현영 씨(왼쪽)와 이상권 씨.

《하늘로 날아간 물오리》《잘가, 토끼야》 등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과장되지 않은 사실적인 묘사를 보여준 동화 작가 이상권 씨와 어린이도서연구회 내 어린이출판문화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배현영 씨가 만났다. 이번 만남은 어린이문학 생산자와 작품의 실제 수요자가 만나 어린이문학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 생산적인 성찰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다. 대화를 나눈 곳은 봄 햇살이 가득한 북한산 자락의 동산이다.



《하늘로 날아간 물오리》 《잘가, 토끼야》의 동화작가 이상권.



어린이출판문화를 공부하는 초등학교 1·4학년 학부모 배현영.

- 이상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잡지나 신문 등지에서 오는 인터뷰 요청을 다 사양했죠.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기사를 보면 오도되거나 오해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지도하는 학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 배현영 ●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는 선생님의 작품에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오로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이상권 ● 저는 전라남도 함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참 집이 가난했어요. 저는 대학 공부를 했지만 저를 가르치기 위해 누님이나 형제들이 모두 학업 대신 일을 해야 했어요. 누님은 버스 차장으로 일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딸꼬마이>를 비롯해서 제가 쓴 모든 동화들에는 그런 저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어요.
- 배현영 ● 선생님의 작품은 예외지만 우리나라의 창작동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삶의 아름답고 밝은 모습만 그려내는 것 같아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도 나중에는 꼭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권선징악 같은 교훈에만 너무 얽매어 있어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친구들을 함께 겪어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상권 ● 옳은 말씀이에요. 교훈적인 것에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어린이문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작가들이 자기만의 색깔이 없다는 것과 작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죠. 젊은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어린이문학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여전히 고정된 시각으로 교훈적인 작품만을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죠. 교훈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미없고 딱딱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실은 교훈성을 갖춘 작품도 다양한 작품들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빛날 수 있거든요.
- 배현영 ●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밝고 명랑하게 커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어렵고 누추한 현실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힐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건전하고 밝으면서도 교훈적인 요소가 많은 책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읽히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이상권 ● 직접 창작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동화도 문학작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화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어린이책의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면서 교훈성이 있는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만을 고려하는데 이제는 문학적으로 얼마나 미학적인 완성도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만 해요. 그래야 어린이문학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작가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배현영 ● 네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어린이책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린이 문학을 재단하거나 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권 ● 어린이문학을 창작하는 분들은 대개가 교사 출신이거나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예요. 이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훈육사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려고만 하죠.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만을 강요하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다양한 책읽기를 지도해야 해요.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구요. 우리나라 작가들도 유럽의 작가들처럼 모든 장르를 다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책이 잘 팔리면 모두들 그 책을 모사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어떤 작가는 동화 한편을 써서 수십 군데 출판사에 보내고 구걸하듯이 책을 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의 문창과에서도 열정을 갖고 어린이문학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해요.

배현영 ● 교사나 주부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권 ● 제 생각에는 작가의 유명세에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책을 고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름 있는 작가의 작품에도 태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현영 ● 번역 작품들에도 문제가 많지 않나요? 요즘은 환타지 열풍이 불어서 외국의 환타지 작품들이 무분별하게 번역되어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서양의 환타지를 보면 그 상상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서사적인 맥락이나 내적인 질서와는 무관하게 자극과 흥미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래동화들 속에 드러나는 상상력은 이야기의 내용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감탄하게 되요.

이상권 ● 네, 외국 작품들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외국 작품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요. 일본만 해도 그렇구요. 분명히 우리 작가로서 배울 만한 점들이 있어요. 교훈과 재미와 감동의 요소를 두루 갖춘,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현영 ● 어린이책을 보면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실려 있는 작품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감수를 거쳤다는 책들에도 사실과 다른 틀린 정보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저는 저자나 출판사 쪽에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권 ● 네, 실수나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작가들에게는 필요하지요. 그런 잘못들을 지적해 주는 것도 학부모님들의 큰 역할 중 하나죠. 지금 학부모 계층을 보면 대개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고학력자들이예요. 그리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회적인 모순에 민감한 분들이죠. 어린이문학이 이 정도로 발전한 데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배현영 ●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좋은 작가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도 하죠. 선생님도 힘을 내셔서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권 ●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현영 ●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출판**